

죽음과 고통에 대한 성찰 1 - 죽음관

최수빈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絶緣)된 것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법정 스님, <미리 쓰는 유서> 중에서

탄생이 삶이듯 죽음도 삶입니다. 드는 발도 걸음이고 내딛는 발도 걸음입니다.

- 타고르, <길 잃은 새들> 중에서

하는 인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웰 다잉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의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주제 인생의 종착점으로서의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죽어감, 곧 삶에 동반되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죽음도 행복이나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죽음, 죽어감, 그리고 고통

삶의 종결점이 죽음이라면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 곧 ‘죽어감’의 과정이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죽음에 임박한 사람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고통이 수반된다. 특별히 죽기 직전 일정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한다. 또한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경험한다. 물론 모든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이거나 죽어가는 과정에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죽음은 고통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고통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죽음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어쩌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죽어감의 과정이기 때문이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극복과 초월은 고통의 극복이요 죽음을 종결점으로

죽음에 대한 성찰

“예로부터 (인간은) 모두 죽는다(自古皆有死).”라는 『논어論語』의 말이나, “우리의 삶은 끝이 있다(吾生也有涯).”라는 『장자莊子』의 표현처럼,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가장 평등한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은 각 개인, 혹은 종교, 민족마다 차이를 나타낸다. 죽음에 대한 이해 안에는 바로 그 사회의 세계관이 집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각 문화전통에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터널인 죽음에 대해 ‘답 없는 답’을 말해왔다. 인간의 사고와 추리가 멈추는 곳, 그렇기에 인간의 이성에게는 가장 어둡고 알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인 죽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지적 난제였으며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지적 싸움을 계속해 왔다.

1) 현대 한국인의 죽음관의 특성

현재 한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죽음관 혹은 생사관은 간단히 말해 매우 복합적이고 과도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 서양문화와의 조우 이후 한국인의 의식 안에는 서양의 철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지구(全地球)가 공유 있는 보편적인 사고는 서구의 학문적 전통에서 유래한 1)“현대의 세속적 학문주의(Secular Academism)”이다. 이렇듯 이성적 분석을 중시하는 학문적 사고에 따라 죽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죽음접근에 가장 일반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한국인들의 심성 안에는 전통적인 문화적, 종교적 기제도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즉 2)유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적 세계관이나 3)인도에서 유래한 불교적 세계관도 여전히 우리들의 세계관과 죽음관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대한국사회에서 놀랍게 번창하고 있는 4)그리스도교적 세계관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한국인들의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국과 지옥 등의 그리스도교적 내세관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종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단히 말해 현대 한국인들의 죽음관 안에는 서양적 사고에서 유래한 과학적 사고나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심층에는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동아시아적 세계관이나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적 세계관이 복합적으로 병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사유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동서양의 세계관과 죽음관 양자를 아울러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동서양의 세계관과 죽음에 대한 이해

가)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

동양과 서양은 기본적으로 서로 상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경우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부터 이원론적 세계관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플라톤(Plato)으로부터 시작된 이원론적 사고는 중세 그리스도교 신학에 계승되어 서양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간단히 말해 서양에서는 본질적이고 완전한 이데아(idea), 혹은 신(神)적 세계를 비본질적이고 불완전한 현상세계와 구분하여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데아나 하느님은 현상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초월적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원론(dualism)적 사고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정신은 주로 본질적인 세계, 곧 이데아나 신적 세계에 연결되는 대상이고 육체는 비본질적인 세계인 현상계, 즉 물질과 연결되는 불완전한 대상으로 파악한다.

이에 반해 동양에는 서양과 같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찾아볼 수 없다. 동양에서는 천(天)이나 도(道)와 같은 궁극적 실재가 현상계와 분리되어 있는 초월적 대상이 아니라 사물의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기(氣)’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기는 물질과 정신, 혹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구성하는 중립적 요인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도 기로 구성되며 영혼도 기로 구성된 것으로 믿는다. 기는 육체와 정신, 양자를 소통하는 개념이다.

시간에 대한 이해도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 서양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동양전통은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계절의 순환과 같이 시간은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 순환하며 이 안에서 사물들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나) 동서양의 죽음에 대한 이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세계관의 차이는 인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에 반영된다. 서양의 경우 고대로부터 인간을 영혼(정신)과 육체의 이원적 존재로 파악하며 육체의 소멸 후에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영혼불멸사상〈피타고라스(Pythagoras)〉이 나타나는가 하면 죽음을 ‘육체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플라톤〉’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상적 전통이 중세의 그리스도교 전통에 이어지면서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과 영혼의 영생과 구원 개념이 강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양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부정되기보다는 인간이 본질적인 이데아 세계(혹은 하느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기회로 상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 안에서는 삶과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관계와 같이 이원적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는 죽음과 삶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이들 양자가 모두 하나의 자연의 순환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동양전통에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나 사후의 영혼불멸 개념이 없다. 육체와 영혼을 모두 기의 구성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결국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던 기들이 점차 흩어져 일정시간 이후에는 모두 기의 원천이 되는 원기(元氣)로 수렴되어, 다시 그 기가 인간이나 다른 사물들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간단히 말해 동양과 서양의 생사관은, 서양전통에서 삶과 죽음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생사 분리(生死分離)의 사고가 강한 것에 비해 동양전통에서는 삶과 죽음을 동일한 자연의 순환관계로 파악하는 생사일여(生死一如)의 입장이 강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3) 서양철학에서 바라본 죽음

- 근대 이전과 이후의 죽음관의 변화: 형이상학적 이해에서 물리적 이해로

플라톤은 철학을 ‘죽음을 준비하는 예술’이라고 하

였다. 스토아(Stoa) 학파의 세네카(Seneca)는 “사는 방법은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으로 불가사의하게 여겨지겠지만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죽는 일이다”라고 설교하였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서양에서는 죽음에 대한 사색은 철학자의 작업에 있어서 지나칠 수 없는 과제였으며 매우 중요한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철학의 죽음관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큰 틀에서 보면 서양철학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근대 즉 계몽주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계몽주의 이전 시기에는 대개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죽음관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계몽주의 시기 이후에는 물리적 죽음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서양의 근대 이전에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영생을 통하여 인간개체의 불멸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근대의 기계론과 그에 따른 분자물리학, 분자생물학 등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거의가 인간의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근대 이전에는 주로 인간의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파악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근대 이후도 여전히 인간의 죽음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존재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육체적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유전공학,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죽음을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의 경우를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태도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물리적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콧(Comt)와 같은 실증주의적 철학의 영향으로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대상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점차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성적 논리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증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접근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 손에는 원리를, 다른 손에는 실험을 들고 대상에 면밀히 접근하는 근대 계몽주의 사조 이

후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관조하는 철학자나 그 세계를 믿는 신학자보다는 그 세계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제작하는 기술자가 중시되었다. 따라서 죽음도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세계에 근거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보이는 세계의 현실에 근거해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의 의학, 생물학, 유전공학의 발달은 물리적 죽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인간의 죽음을 신체로부터 영혼이 이탈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신체의 소멸만을 죽음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 철학의 한 분과인 심리철학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익히 알다시피 임신중절, 안락사, 뇌사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죽음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중심 문제로 다가와 있다.

가) 근대이전의 형이상학적 죽음관

중세까지 서양철학자들은 자신이 확인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자기의 이해 바깥에 있는 타자(他者), 즉 형이상자(形而上者)를 인간 자신이 근원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세계로 대하였다. 형이상학의 세계는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가 아니고 자신을 초월해 있는 객관적인 실재의 세계가 된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이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순수형상(eidos)의 세계이고 중세 그리스도교의 신(神)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처럼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출현하고 소멸하는 현상의 세계를 넘어 모든 생명의 출처인 근원 생명으로 향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이 현상세계의 모든 일이 근원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삶과 마찬가지로 현상계의 사건인 죽음 역시 결코 영원한 자신의 생명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 생명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형이상학적 태도로 삶과 죽음을 대하는 사람은 현실적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이상학적 죽음관은 이세상과의 이별,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지拂해야 하는 죽음을 담보로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이 세상의 무의미성을 증폭시키며 현세적 삶을 억압하는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한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부작용과 모순을 깨달은 서구인들은 점차 형이상학적 타자에 의존하는 개인에서 자신의 주체성과 자유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계와 인간에 대한 확실하게 설명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근대적 주체에게 있어 자신의 죽음을 의미롭게 해주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며, 죽음이란 타자를 통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통해 극복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근대 이후의 물리적, 기계론적 죽음관

근대 이후 서양철학에서 죽음은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절대 타자가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나의 문제이다. 근대 철학자에게 있어 가멸적이고 육체적인 자신 이외의 또 다른 자신은 있을 수 없다. 그에게서 죽음은 이제 기계론적이고 물리적으로 설명된다. 즉 죽음이란 육체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atom)의 기계적 분해이다. 죽음은 물리적 현상 이외의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가 흩어지면 죽음이고 만나면 태어남이라면 본래 죽음이란 없는 것이므로 슬퍼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마침내 현대인은 형이상학을 구시대의 유물로 파악하고 모든 생명체를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죽음은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활동 영역 내에서 존재 의미를 지닌다.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다가섰다. 이러한 단초는 이미 근대 분자물리학, 분자화학, 분자생물학의 발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과학은 모든 존재를 기계적으로 분해, 조립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근대의 기계복제시대는 생명의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더 이상 인간

이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개념적으로 논증할 수 없는 직관의 대상으로서의 형이상학적 세계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사물화되면서 생명의 탄생과 죽음 역시 사물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기계를 복제하는 시대를 넘어 살아 있는 생명을 복제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즉 알케미(alchemy, 연금술)의 시대에서 알게니(algeny, 유전공학)의 시대로 이행하였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도록 만드는 무거운 영역이 아니라 일상화되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의 게임이 되었으며 상업화되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민은 우리의 중심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이제 죽음의 문제는 형이상학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의 문제가 되었으며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 맡겨져 있다. 현대에는 태아를 죽이는 임신중절, 중병이나 식물인간 상태에 처해있는 중증환자에 대한 안락사, 뇌기능 상실자의 뇌사 선고 등 죽음의 인위적 조절이 병원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또 그것은 죽음을 자본화하고 상품화하는 과정과 직결되어 있다. 더군다나 계층 프로젝트의 수행은 이제 인간의 생명을 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차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태도의 잘못된 왜곡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물리적 태도의 잘못된 왜곡도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과도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읽어 내거나 물리적으로 읽어 내는 것은 그 모두가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영혼을 절대화하거나 육체를 절대화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동양에서 바라 본 죽음

가) 유교의 죽음관

① 삶과 죽음에 대한 합리적 이해

유교는 창시자인 공자(孔子)로부터 합리적 정신이 투철하여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간세계의 일도 모두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귀신이나 죽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러한 합리성은 여전히 반영된다. 공자는 그의 제자 자로(子路)가 사후세계의 신적(神祇) 실체로서의 귀신을 섬기는 일과 죽음에 대해 물어보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자로가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해 묻자 공자에게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럼 죽음은 어떠하십니까?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논어(論語)』, 「先進」편)

위의 예문은 공자를 필두로 한 유교의 관심이 실질적으로 인간이 인식하고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귀신과 죽음에 대한 공자의 대답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사색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비관과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와 긴장, 죽음 자체에 대하여 스스로를 속이거나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등의 현상은 유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 모두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삶의 가치를 귀중히 아끼고 최대한 실현하며,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현실 세계의 감성적 생활이 주는 행복을 충분히 향유해야 한다. 공자는 죽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오직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즉 삶과 죽음, 사람과 귀신이 별개의 이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에 의해 운영되므로 삶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도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자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귀신과 같은 존재를 부인했다기보다는 이를 우리의 경험세계의 이치에 어긋나는 괴이한 실체나

현상으로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② 유교 제사의 의미와 이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적 사유구조 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일정시기를 거쳐 모두 기(氣)가 흩어져 원기(元氣)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또한 귀신과 같이 불가지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에 대한 숭배가 유교의 합리적 정신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유교에서 제사의식을 강조하는가? 우선 유교인들은 사물의 기가 흩어져 개체가 소멸해도 그 사물을 구성하는 이치(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조상도 마찬가지로 그 육체와 영혼은 흩어지더라도 조상의 기가 유전적으로 자손에게 전해져 있으므로 그 기도 남아 있고 조상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은 자손들에게 이치 역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상은 자손인 나의 존재적 근거이므로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사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제사의 중요한 목적은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심성을 가꾸고 인간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에 있다. 즉 조상신에게 제사드림으로써 효(孝)를, 천신(天神)에게 제사드림으로써 공경(恭敬)의 마음을 함양시키려는 뜻이 있다.

③ 유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천명(天命), 곧 정해진 수명과 운명, 그리고 인생 동안 마땅히 완수해야 할 인간적 도리 혹은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설명한다. 죽음 역시 천명에 의한 인간 존재의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죽음을 혐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천명으로서의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적인 태도라고 주장한다.

또한 분명한 내세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 유교에서는 죽으면 모든 생명의 근원지인 천지(天地)로 회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천지 역시 별도의 차

원의 세계가 아니고 삶의 공간과 다름없는 공간이다. 즉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차안의 세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로부터 유교에서는 죽음보다는 삶을, 피안의 세계보다는 차안의 세계를 중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④ 인간 개체의 소멸인 죽음과 인간의 영속성의 문제에 대한 유교적 대안

인간도 죽으면 전체로서의 우주의 일부로 녹아든다고 하는 합리적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사후에 각 개인의 개체성이 소멸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가이다. 사후에 개인의 불멸이나 영혼 불멸을 말하지 않는 유교의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간단히 말해 유교에서는 유전적 영생, 혹은 사회적 영생을 추구함으로써 사후에 자신의 개체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해결하고 있다. 유전적 영생이란 유전을 통해 자신의 기를 물려받은 자손에 의해 자신의 일부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고 사회적 영생이란 생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관념이나 도덕적 이상 등이 가족을 비롯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전적 영생이나 사회적 영생의 관념을 바탕으로 유교에서는 제사 등의 의식을 통해 사후에도 자신의 대리자로서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념이나 도덕적 실천을 대신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문화를 소유한다. 다시 말해 제사는 죽은 자에 대한 공경과 산 자에 대한 축복이 교환되는 가운데 죽음과 삶의 세계가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장치이며 사후의 영생을 보장하는 길인 셈이다.

그러므로 유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개체적 존재의 영생이 아니라, 조상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군자적(君子的) 정신과 행위의 영생이며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도적적 영생(moral immortality), 혹은 사회적 영생(social immortality)이다

나) 도교의 죽음관

유교와 더불어 중국사상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도교는 유교와 상이한 죽음관을 가지고 있다. 도교의 종교적 특성 자체가 그렇듯 도교의 죽음관도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도교의 죽음관은 이중적, 혹은 중층적이다. 장자(莊子)와 같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여기고 생사를 초월한 태도를 보여주는가 하면, 갈홍(葛洪)과 같이 육체적 불사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청파나 내단 계통의 분파에서는 장자와 마찬가지로 생사를 초월한 새로운 의미의 불사(不死) 관념을 제시한다. 도교전통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리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간의 실존이 안고 있는 원초적 곤경(predicament)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죽음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적 생명의 원리, 곧 참된 도(道)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주의 시원이며 궁극적 실재인 도(道)의 영원성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한계상황이나 불완전성, 원초적 곤경을 극복하는 길이며 이렇듯 도를 획득한 인간, 바꾸어 말하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는 인간을 신선(immortal)이라고 지칭한다.

① 장자의 죽음관

『장자』라는 경전에 보면 있어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적 절차로 묘사된다. 장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의 리듬에 따르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한다. 『장자』(天道편)에서는 “하늘의 기쁨을 아는 자에게 삶 또한 하늘을 따르는 행동이고 죽음 또한 사물의 변화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죽음에 대해 슬퍼하거나 분노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장자는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뺀고 앉아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장자에게 죽음은 단지 기(氣)의 변화에 따른 인간 형태의 변화일 뿐이다. 형체가 변해서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형체가 변해서 죽게 되는 것이다. 삶과 죽

음을 하나로 여기는 장자의 죽음관은 후대 도교인들의 죽음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유교의 합리적, 현실적 죽음관과 병행하여, 중국인들이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지침이 되어 주었다.

②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에 나타난 신선사상

육조시대 갈홍(283-363)이 저술한 『포박자』는 중국의 신선사상과 연금술을 대표하는 문헌으로서 인간의 불사가능성을 믿고 이를 실현하는 방편으로서 불사약인 금단(金丹)을 제조하는 기술을 제시한다. 금단은 순수한 금이 아니라 수은과 황(혹은 납) 화합물이며 이것이 실제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었지만 금단을 제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연금술 및 화학기술이 발달하였고 더불어 치료약으로서의 약초나 기타 약물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것이 중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현대적 과학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무지한 발상으로 생각되지만 갈홍의 불사추구의 노력은 인간의 생명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선사상의 전통은 한의학 전통과 함께 동아시아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수명연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태도를 심어주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섭생법이나 건강관리법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③ 상청파(上清派)와 내단(內丹) 도교의 정신적, 초월적 신선관

갈홍과 같이 선선을 육체의 불사를 향유하는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육조시대 남조에서 등장한 상청파나 북송시대 이후에 등장한 내단(內丹) 도교분파에서는 신선이란 존재가 향유하는 불사, 혹은 영생을 초월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도(道)에서 벗어난 상태이며 영생이란 득도가 아니라 불사의 존재로서의 신

선은 육신의 생사여부와 무관하게 득도한 존재로서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내단 전통에서는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명상과 호흡, 체조 등의 다양한 수법을 개발하였다. 현재 중국이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공이나 단 등은 바로 내단 수행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 불교의 죽음관

불교는 유교나 도교와 달리 인도로부터 유래한 이질적인 문화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인의 사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힌두교와 공유하고 있는 불교의 윤회관은 동아시아에 죽음 이후의 시간과 세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불교에서 죽음이란 태어남, 늙음, 질병 등과 더불어 인간의 본질적 고통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오온(五蘊), 곧 인간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인 색(色, 육체), 수(受, 감각기관), 상(相, 이미지), 행(行, 의지나 의도), 식(識, 의식)이 분해되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깨달음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란 인생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따라서 불교인들에게 죽음이란 마음의 문제이다. 태어나는 존재는 반드시 죽게 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생과 사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윤회라고 하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해탈, 즉 열반의 상태에 진입하여 나고 죽음이 없는 자유의 존재가 된다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과정은 태어나는 순간인 생유(生有), 살아가는 기간인 본유(本有), 죽음의 순간인 사유(死有), 그리고 죽는 순간부터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중간기간인 중유(中有)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중유의 기간은 7일부터 최대 49일까지로 이야기하며 따라서 죽은 뒤 49일이 지나면 사자(死者)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된다. 불교에

서 흔히 49재(齋)를 지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5) 한국적 죽음관의 수용과 대응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현대 한국인의 죽음관의 특징은 매우 복합적이고 과도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인의 죽음관이 형성된 바탕에는 현대의 세속적 학문주의(Secular Academism), 동아시아 고유전통의 유교와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 등,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 양자에서 기원한 다양한 죽음관이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현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계몽주의 탄생 이후에 나타난 기계론적 죽음관, 곧 의학적 과학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려는 태도일 것이다. 현대인이라면 이러한 과학적 접근을 배제하고 인간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죽음관 안에는 여전히 전통적 사고, 즉 유교나 불교, 도교적 사고의 영향이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교적 죽음이해, 혹은 유교적 생사관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죽음관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유교는 외형적으로는 사제나 사원이 따로 없는, 다시 말해 세속과 종교가 일체화된 생활종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과도한 유교적 의례집행에 지친 한국인들에게 점차 거부되어 현재에는 구시대의 유물정도로 인식되는 형편이고 보니 현대 한국인들의 삶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비중이 종종 무시된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의식 바탕에 유교는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가족주의와 교육을 중시하고 세속적 성공만큼이나 도덕적 의무를 중요시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한국인들은 누구나 유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특정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은 유교적 사고에 기초해 삶과 죽음, 그들의 생활윤리를 마련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나아가 특

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교적 세계관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죽은 이에 대한 장례를 치루거나 정기적으로 제사를 모시는 일이 한국인에게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른 가족, 즉 부모를 잘 모시거나 자식을 잘 양육하여 좋은 가문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한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임무-부모를 모셨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게 하는 것-를 제대로 완수한 것이야말로 떳떳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자신들이 죽어서 조상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듯 천명의 완수 순간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가, 부모와 자식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자식이 부모의 일부로서 부모의 사고와 행위를 계승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유교적 사고는 현재 한국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불교의 업보와 윤회의 사상과도 맞물려 이해된다. 즉 이생에서 선한 업보를 잘 수행하는 것이 내세에 좋은 삶을 맞이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유교적 도덕주의와 마찬가지로 선한 삶을 강조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한 행위와 가족과 사회 내에서 의무를 잘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다른 자연 내의 사물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존멸을 반복하듯 죽음이란 삶과 마찬가지로 대자연의 순환의 이치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장자적 사고도 한국인들의 의식 한편에는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수명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발상에서 탄생된 신선연금술의 사고도 한국인들의 생사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난치병에 걸린 경우 현대의학적 치료 외에 민간처방이나 식이요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려는 경향, 예방의학 차원에서 다양한 약초나 보조식품을

일상적으로 복용하기를 즐기는 문화풍토가 바로 신선연금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웰 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죽음학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적인 호스피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환우 및 가족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알리고 이를 돕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 개인, 혹은 가족공동체의 세계관이나 종교관을 존중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세계관이나 종교관에 따라 자신의 죽음을 잘 정리하고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호스피스의 작업이다.

이제 다음으로 죽음, 그리고 죽어감의 과정 안에 내재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존 바우커, (세계 종교로 보는) 죽음의 의미, 박규태, 유기쁨 역, 청년사, 2005
2. 김승혜 편, 죽음이란 무엇인가-여러 종교에서 본 죽음의 문제, 도서출판 창, 2009
3. 장 폴 사르트르 외 지음, 죽음의 철학, 정동호 외 공편, 청람, 2004
4. 최준식, 죽음의 미래: 종교학자가 쓴 사후 세계 가이드 북, 소나무, 2011
5. 오진탁, 죽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4
6. Ben Bradley,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Death,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7. Religious Encounter with Death, edited by Frank Reynolds and Earle Wauch,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1978
8. John Fisher, The Metaphysics of Death,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 다음호에 '죽음과 고통에 대한 성찰 2-고통관이 이어집니다. -